

광주시, 태양광 인증서 매각 '숨은 수익' 창출

광주시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매각해 '숨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성과를 공공자산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시 시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853개를 최근(2월3일)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 매각해 60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다.

이는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에서 확보한 REC 844개와 '방음벽·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사업'에서 확보한 REC 9개를 합한 물량이다.

광주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비 가운데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 비율을 명확히 산정, 이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 소유 자산으로 확보·관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된다. 전기 판매 수익과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어 공공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뒤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발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853개 현물시장 매각 6000만원 세입 2030년까지 20억 수익 예상... 에너지 복지 등 지역사회 재투자



후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소멸된다. 이에 광주시는 시장 가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력거래소의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활용해 유효기간 도래 전에 주기적으로 공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했다.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민 공익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7MW 보급을 위해 총 6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약 2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태양광 설비 수명을 고려해 20년간 약 9만200여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경우, 현재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외수입은 약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체감형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실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각은 공유재산을 단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행정 효율을 높인 사례"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로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설 명절 맞이 '농지은행사업' 홍보 펼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지사장 류화열)는 설 명절을 맞아 나주 관내 전통시장에서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사 직원들은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 지역민들에게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며, 2026년 더욱 강화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등의 혜택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65세부터 84세까지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매도)할 경우,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경영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 폐지 소식도 전했다.

이는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공사에 농지 임대를 맡길 수 있어 현장 농업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될 전망이다.

류화열 나주시사장은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경영 중인 농업인에게는 수수료 폐지라는 실질적 경제 혜택을 알리고자 이번 현장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쉽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방문 또는 유선상담(061-330-9520)을 통해 가능하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라남도가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산자단체 등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농법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당해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논·밭) 중 15ha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벼 재배 농가는 ▲

전남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27일까지 모집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중 15ha 이상 재배 농업법인·단체

중간 물떼기 실천 시 ha당 15만 원 ▲논물 알개 걸러대기 실천 시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46만 원의 활동비 등 ha당 최대 7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발작물 재배 농가도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ha당 46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약 한 달 후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논

물을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알개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이후 2~5cm 정도의 얇은 물을 대고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토양개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채일 기자

사업 참여를 바라는 생산자단체 등은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논물 계측기를 구매·설치하거나 바이오차를 농협을 통해 구매하면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시민생활 안전대책 ▲비상진료 예방대책 ▲물가안정대책 등 3대 분야 12개 항목 47개 과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명절 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화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광주시, 설 명절 시민생활안전 현장 점검

서부소방서·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찾아 안전관리 점검

파·대설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연휴 동안 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현장을 찾아 설 명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설 명절을 앞둔 10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부소방서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현장을 차례로 찾아 시민생활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이날 서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비상근무 체계와 재난대응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명절 연휴에도 현장 지키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설 명절 기간 한

전남도, 설맞이 수산물 소비 회복 총력

전북·민물장어 할인 쿠폰·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진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전복과 민물장어에 대해 20~30% 할인 쿠폰을 발행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을 통해 총 246톤의 수산물 소비를 이끌어내며 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어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회복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염선호 기자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지역 우수 품질의 초벌 민물장어를 온라인 커머스 방송을 통해 30% 할인 판매해 전량 소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해당 제품은 설 명절 전 예산 소진 시까지 동일한 할인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진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설 명절 기간 도민이 싱싱한 지역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즐기도록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